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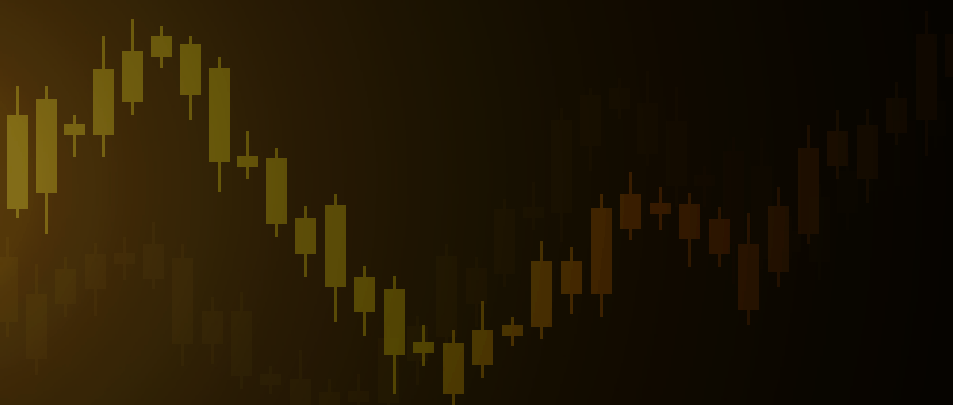
CIFC BiAnnual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CONTENTS

- 04 발간사
-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14 회원기관 동정 : 기술보증기금
- 16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 18 전문가 초청세미나: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검토
- 22 기고 : 캄보디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금융부문 협력방안
 - 26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인도네시아
 - 32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39 인터뷰 : CCG Finance Morocco
- 40 기고 : 핀테크 활용을 통한 금융 포용성 증진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사례를 통해
 - 42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 44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발간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교류기반을 쌓아가며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기관들은 금융협력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하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발표로 이러한 협의회 활동은 한층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의미가 강했던 동남아시아에 국가간 협력수준 제고라는 대외정책적 의미가 부여됨에 따라, 그 동안 저희 협의회가 수행해온 이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사업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중요한 활동이 된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평화·상생번영이라는 핵심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인도 간에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다양한 인적 교류, 상호 이해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 간의 적절한 금융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21개 회원기관들은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주요 인프라 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기관과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간의 호혜적 금융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미래 번영의 공동체 실현에 일조하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국내외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세미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을 진행하면서 금융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및 회원기관들은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협의회는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 800여명 가까운 금융전문가와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또한 금융분야의 주요 트렌드에 관심을 두고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를 금융협력의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여러 형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소기업금융의 주제 하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금융 포용성을 강조하는 주제로서, 저희 협의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지난 6년간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더 체계적이며 더 의미있는 금융협력 사업을 펼쳐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관점도 염두에 두면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신남방정책이 포괄하는 국가들 외에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저희 협의회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협력력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금융변화를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당국의 앞선 지원에 힘입어 여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저희 협의회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협력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2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손상호**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우리나라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금융변화를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설립배경 & 회원명부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21개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PARTNERS



금융위원회



kif 한국금융연구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



현재 21개의 회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KIBO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DIG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DIC 예금보험공사	 koscom
 KRX 한국거래소	 KSD 한국예탁결제원	 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KCB	 NICE 평가정보 NICE Information Service	 IBK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여신금융협회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2013

KEY ACTIVITIES

- Mar.**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 워크숍** 제1회 해금협 워크숍
- Apr.**
 - 회의** 4월 정례회의
 - 연구사업**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 May.**
 - 회의** 5월 정례회의
- Jun.**
 - 회의** 6월 정례회의
 -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 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 세미나
- Jul.**
 - 회의** 7월 정례회의
- Sep.**
 - 기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 초청연수**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연수
- Oct.**
 - 회의** 10월 정례회의
 - 포럼**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 Nov.**
 - 회의** 2013년 정기총회
 -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 Dec.**
 - 강연** 국제결제은행(BIS)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워크숍** 제2회 해금협 워크숍

2014

KEY ACTIVITIES



Jan.	초청연수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Feb.	회의	2월 정례회의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Apr.	포럼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회의	4월 정례회의
May.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포럼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Jun.	회의	6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국내금융의 성공적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발주
Jul.	회의	7월 정례회의
Aug.	초청연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Sep.	회의	9월 정례회의
Oct.	초청연수	덴마크 Danske Bank 부사장 초청
	회의	10월 정례회의 개최
Nov.	초청연수	미얀마 Myanmar Insurance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회의	11월 정례회의
Dec.	포럼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5

KEY ACTIVITIES



-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 Feb.** 회의 2015년 정기총회

-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개최

- May.**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연구사업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포럼 제2회 한·영 민관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Jun.** 워크숍 제3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기타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 Jul.**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회의 7월 정례회의

- Sep.**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포럼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6

KEY ACTIVITIES



-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
- Feb.**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2016년 정기총회
-
- Mar.**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Aloqabank) 초청
워크숍 제4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WB 송도사무소 Sameer Goyal 초청
초청연수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
세미나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 세미나
-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
- Jun.** 포럼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회의 6월 정례회의
-
- Jul.** 초청연수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회의 7월 정례회의
-
- Aug.** 초청연수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기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 Sep.** 회의 9월 정례회의
-
-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
세미나 한·이란 금융협력 세미나
-
-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
- Dec.** 포럼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7

KEY ACTIVITIES



Jan.	회의	부서장급 사전회의
Feb.	회의	2017년 정기총회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강연	기획재정부 박종근 국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Apr.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회의	4월 정례회의
May.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 해금협 공동 토론회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회의	5월 정례회의
Jun.	초청연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 세미나
	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간담회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회의	6월 정례회의
Jul.	공동연수	신용보증기금 · IBK기업은행
	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Aug.	기타	CIFC BiAnnual Vol. 1 발간
Sep.	공동연수	한국신용정보원 · NICE 평가정보
	회의	9월 정례회의
	포럼	한 · 태국 금융협력포럼
	워크숍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포럼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Nov.	포럼	제4차 한 · 영 금융협력포럼
	회의	11월 정례회의
Dec.	포럼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금융결제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18

KEY ACTIVITIES



- Jan.**
- 회의 정기총회 사전회의
 - 워크숍 제4회 미안마 주택금융 워크숍
-
- Feb.**
- 회의 2018년 정기총회
 - 기타 CIFC BiAnnual Vol. 2 발간
-
- Mar.**
- 회의 3월 정례회의
 - 포럼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
- Apr.**
- 회의 4월 정례회의
 - 기타 CIFC 2017 Annual Report 발간
-
- May.**
- 세미나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 회의 5월 정례회의
-
- Jun.**
- 세미나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 회의 6월 정례회의
 -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
- Aug.**
- 세미나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검토
 - 공동연수 IBK기업은행·은행연합회
 - 회의 8월 정례회의
 - 기타 CIFC BiAnnual Vol. 3 발간
 - 기타 제3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
- Sep.**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 Oct.**
- 공동연수 금융결제원·NICE평가정보
 - 회의 10월 정례회의
-
- Nov.**
- 공동연수 신용정보원·KCB
 - 회의 11월 정례회의
-
- Dec.**
- 포럼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
 - 회의 12월 정례회의
 - 기타 제4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회원기관 동정



해외금융협력협회의 반기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회(이하 '해금협')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설립되어, 회원기관의 국제업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해금협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기술평가사업의 글로벌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기보는 1989년에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켰고, 박사급인력 2백여명을 포함하여 전직원의 50% 이상이 기술평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국내 최고수준의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설립 이후 약 350 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술금융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장에 기술금융이 뿌리 내리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한 기보는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보증기관에서 벤처혁신종합지원기관으로 역할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맞춰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스케일업(scale-up)까지 아우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2018년 10월 기술신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중심으로 신택제도를 운영하며 기술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기관과의 교류와 함께 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신남방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베트남 및 태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 데 이어, 남미 페루에는 기술혁

신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지표와 인증, 보증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구축을 위해 기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기후기술정보 공유, 공동 기술이전사업,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금융 시스템의 전파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책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MOU에 따라 기술평가시스템을 유럽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유럽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국내 최초로 참여(8개의 유럽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유럽 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평가모형 개발' 프로젝트를(InnoRate)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술평가시스템의 글로벌 브랜드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금협은 금년에도 국제금융협력포럼, 현지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 및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는 해금협의 해외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기술금융지원기관에 머물렀던 것에서 탈피하여 벤처혁신종합지원기관에 걸맞게 노하우 등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반기보고서의 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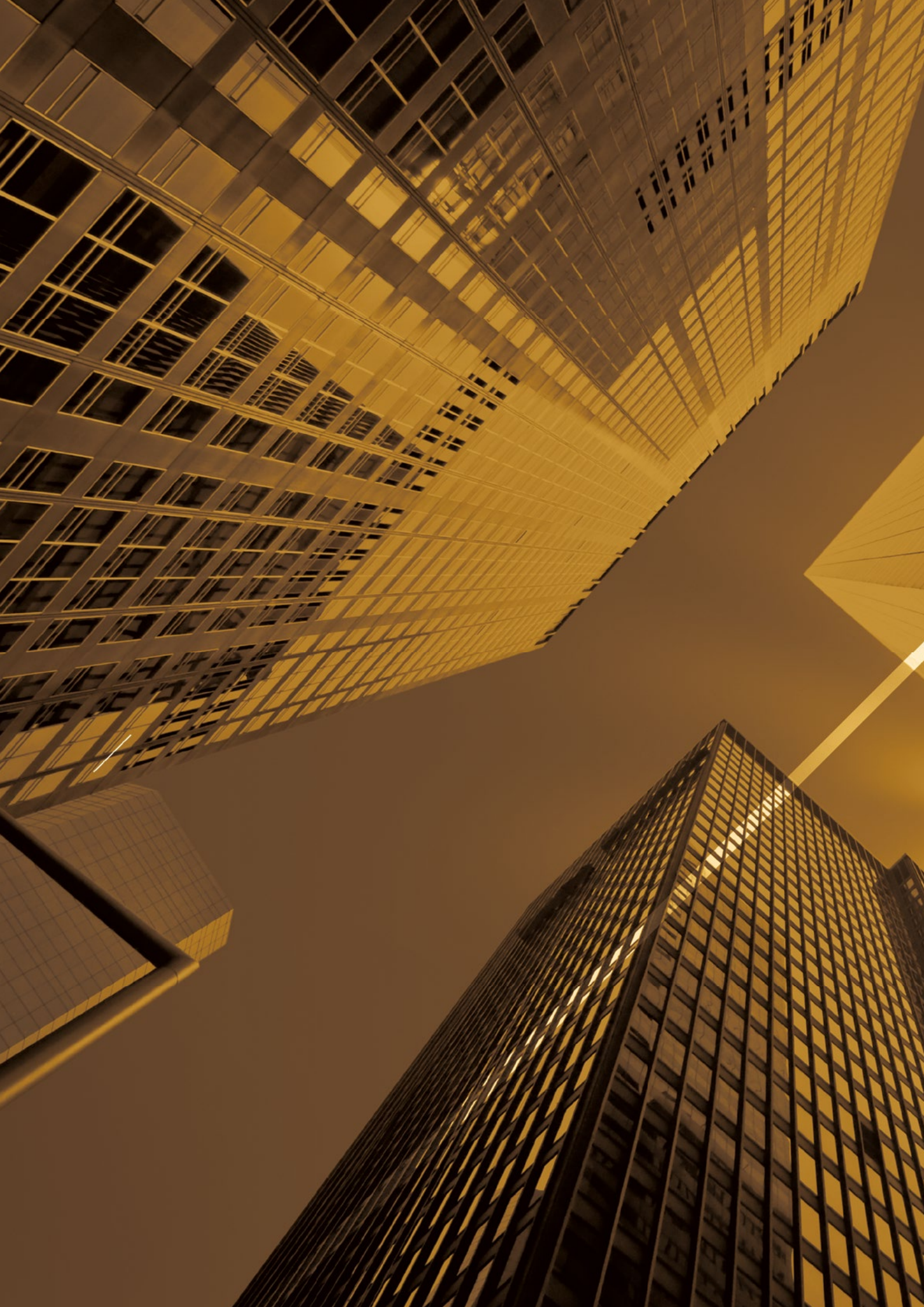
2019년 2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정 윤 모

“

기술보증기금은
해금협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기술평가사업의 글로벌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





2018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CIFC BiAnnual

전문가 초청세미나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검토

Understanding the New Southern Policy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ambodia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8년 8월 31일(금) 포시즌스 호텔 6층 누리룸에서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최동현 교수, KB국민은행 캄보디아법인 박용진 법인장 및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이진수 과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05	인사말씀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환 센터장
14:05-14:10	기념촬영
14:10-15:00	캄보디아 경제·금융 현황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최동현 교수
15:00-15:10	휴 식
15:10-16:00	캄보디아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활용 경험공유 KB국민은행 캄보디아법인 박용진 법인장
16:00-16:10	휴 식
16:10-17:00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구현방안과 그간의 성과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이진수 과장





면적
약 18 km² (한반도의 80%)

인구
약 1,580만명 (크메르족 90%, 기타 중국계 및 베트남계 10%)

- 크메르계 - 농업
- 중국계 - 상업
- 베트남계 - 어업

언어
크메르어 (비즈니스에서는 영어 및 불어 통용)

국가형태
정치 : 입헌군주국 (93년 이후)
경제 : 시장경제

캄보디아 경제 · 금융 현황

최동현 | 교수 |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최동현 교수는 캄보디아 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개혁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의류, 농업, 관광산업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건설업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으며 건설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신축 수요와 공공개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청소년 및 중산층의 소비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최동현 교수는 역대 경쟁 심화, 미국의 통화정책 및 무역정책, 중국의 대외 신용축소 정책, 유가 상승 등을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외부요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내부요인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경제 다변화 추진 부진, 부동산부문의 급속한 신용팽창, 열악한 기후조건 등이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은행간 외환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이 2018년 가동 예정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간접금융시장은 예금과 대출 중심이고, 보험은 초기 단계, 자산운용과 신탁은 미도입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인프라의 경우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 금융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는 미도입 상태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활용 경험 공유

박용진 | 법인장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

박용진 법인장은 캄보디아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활용 경험을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젊고 성장세가 두드러진 나라이며 현금중심 달러사용 경제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현금 결제비중이 약 98%이며 카드인프라가 미비하고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금융시장은 작지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수익성은 높은 편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 130개의 금융회사가 있으며, 총자산 3,370억 달러 중 외국자본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모바일 친화적 사회이며 핀테크 활용이 늘고 감독당국의 관심도 크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디지털뱅크 Liiv KB Cambodia는 충전식 지갑 기반의 모바일 뱅크로 캄보디아 현지 생활환경에 맞는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여건, 규제환경 등에 맞추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초청세미나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강화 방안 검토

Understanding the New Southern Policy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ambodia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구현방안과 그간의 성과

이진수 | 글로벌금융과장 | 금융위원회

이진수 과장은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구현방안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핵심 전략인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통해 한-아세안·인도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국가 진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 점포수(개)

국가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18.6	
ASEAN 전체	69	74	78	79	96	106	111	130	139	144	
한-아세안	베트남	37	39	41	39	42	44	46	49	50	52
	인도네시아	9	11	12	12	17	18	19	24	24	25
	미얀마	-	-	-	2	7	11	12	17	21	21
	싱가포르	14	15	151	16	18	19	18	19	18	17
	캄보디아	2	2	3	3	4	5	5	7	7	7
	필리핀	2	2	3	3	4	5	5	7	7	7
	라오스	-	-	-	-	-	-	1	2	4	4
	태국	2	2	2	2	3	3	3	3	3	3
	말레이시아	2	2	2	2	2	1	1	1	2	2
인도	9	11	10	14	14	14	12	14	18	18	
중국	61	61	66	68	72	68	66	64	64	63	
미국	50	49	50	51	53	52	51	52	55	55	
홍콩	33	37	37	37	37	37	36	31	35	34	
영국	22	23	24	24	26	25	27	25	26	27	
전 세계	322	333	344	355	382	391	393	407	431	435	

이진수 과장은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의 필요성으로 아세안 및 인도의 높은 성장 가능성, 인프라 및 설비투자 증가, 금융회사의 높은 수익성 등을 꼽았다.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인도 지역의 성장 지원 및 상생번영을 달성하면서 우리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 상호 진출입 지원,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 신남방 정책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 등 금융분야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신남방정책 도입 후 그간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 ☑ '17.11~'18. 6월중, 아세안·인도 지역 우리 금융회사 신설 점포 5개 (영업기준)
- ☑ '17.11~'18. 6월중, 아세안·인도 지역 금융기관과 MOU 체결 (10건) 및 교육연수·공동금융포럼 개최
- ☑ '18. 7월 기준, 향후 아세안·인도 지역 점포 신설 추진 33개 (설문 결과)



기고

캄보디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금융부문 협력방안

1. 머리말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라는 두 가지 정반대의 이미지와 함께 혼센이라는 지도자가 장기간 집권하면서 아직도 최반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국제적인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앙코르와트를 품고 있는 문화의 도시 씨엠립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찬란했던 캄보디아 문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언젠가 다시 도약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그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도 프놈펜에는 건설 중인 20층 이상 건물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인 정도로 건설경기가 활황이며, 중국 자본은 앞으로 150층 쌍둥이 랜드마크 건물을 프놈펜의 메콩강변에 짓겠다고 제안하여 캄보디아인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1천 6백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는 한반도 면적의 80% 크기이지만 국토의 70%가 평지여서 우리나라의 지형과는 정반대이다. 전 국토에 걸쳐 우기에 집중되는 강우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저수시설과 관개시설 건설 그리고 국토를 관통하는 메콩강의 제방 축조가 급선무이다. 아직도 원조나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캄보디아에 투자할 외국의 자금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의 경제발전 전망과 투자금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캄보디아 최초의 신도시 CamKo City를 건설하고 프놈펜 시내에 주거 및 사무용 건물의 최상위 클래스를 모두 건축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부심이 저절로 생긴다. 건설 분야에 이어 금융업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찍이 프놈펜에 진출하여 외국 금융회사와 경쟁하면서 나름대로 탄탄한 영업기반을 만들어놓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금융에 더하여 IT업종을 중심으로 핀테크 분야에도 선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인정을 받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도적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캄보디아는 이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몰려드는 세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2. 캄보디아의 경제

1) 경제 일반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을 겪은 후 1993년에 입헌군주국으로 새로 출발한 이후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1%로 곤두박질치기도 하였으나 2010년부터 7%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GDP는 2017년말 기준 약 220억달러로 우리나라의 70분에 1에 불과하고 1인당 GDP는 1,400달러 정도이다. 인플레이션은 3%대 초반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재정수지는 만성적자에서 최근 조세징수의 강화로 크게 개선되어 2016년에 GDP 대비 0.4% 흑자로 돌아섰다. 한편, 국제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이나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이 늘어나면서 자본수지가 흑자를 나타내 종합수지는 2017년말 기준 GDP 대비 3%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4년까지 중국의 44%에 이어 한국이 15%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진출한 외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봉제 및 신발제조 산업이 캄보디아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2015년 이전 월 100달러 미만에 불과하던 최저임금이 2017년에는 월 170달러 정도까지 상승하여 저임금 매력이 사라지면서 봉제공장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기간산업이 없는 가운데 2011년까지 농업, 봉제업 및 관광업이 3대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주력산업이었던 농업의 존재감이 크게 쇠퇴하고 2013년부터 건설과 부동산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이 캄보디아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은 무수히 많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1인 지도체제하에서 형성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와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 인구의 65%가 35세 이하인 인구 구조가 큰 장점이다. 또한 아세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내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늘어나고 무역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최동현 | 교수 |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추진에 따른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 및 일대일로 관통국가로부터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신축 수요는 물론 공공개발 프로젝트의 확대, 최저임금의 인상 및 청소년과 중산층의 소비 증가도 캄보디아의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과 달리 비슷한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역내 국가와의 경쟁 심화, 자국 통화 가 아닌 미국달러화 중심의 경제체제하에서 미국 통화정책 및 무역정책의 영향, 최근 중국의 대외신용 축소는 대외적인 제약 요인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산업다변화 추진 부진, 부동산부문의 급속한 신용팽창, 열악한 기후조건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환율과 통화량

캄보디아는 자국의 통화인 리엘을 미국달러화에 연동시키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고수하면서 리엘화의 환율이 미국달러화당 4,000을 기준으로 3,800~4,100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리엘화는 납세시기이면서 크메르 렉으로 신년인 4월과 수확기인 12월에 수요가 증가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은행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율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금융회사 및 환전상에서 거래된 전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며, 금융회사 및 환전상은 이를 기준으로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미국달러화와 리엘화를 교환한다.

캄보디아는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고유 기능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의 파급경로를 이용한 거시경제정책을 펼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 최근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리엘화 사용 확대방안을 찾고 있으나 탈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달러화는 일반상거래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이 대부분 미국달러화 표시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라이제이션의 포기는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쉽지 않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금융회사의 자본금 확충 및 신규진출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캄보디아중앙은행 자문관으로 부임할 당시인 2015년 9월

에 외환보유액은 6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말 기준으로 1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캄보디아중앙은행은 일찍이 외환보유액 운용을 핵심기능으로 여겨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우수한 인력이 바로 총재 등 임원의 친인척이다. 외환보유액 운용에 공을 들인 덕분에 캄보디아의 외환보유액 운용시스템은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앞서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간 협력차원에서 자문관을 파견하여 캄보디아의 외환보유액 운용을 자문해오고 있다.

캄보디아의 통화량(M1)은 시중에 유통되는 리엘화와 리엘화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지만 광의의 통화인 총통화량(M2)에는 저축성예금과 외화예금이 포함된다. 2018년 9월말 현재 약 210억달러 수준인 M2의 85% 이상이 외화예금이다. 캄보디아중앙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한 기준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통화정책만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 캄보디아의 금융시스템

1) 금융시장

캄보디아의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인프라로 구성되는 금융시스템에서 특히 금융시장의 발전속도가 더디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캄보디아중앙은행이 2013년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양도성예금증서(N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가 유일하다. NCD는 금융회사에 여유자금 운용수단을 제공하고 은행간 무담보 자금대차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1주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가 다양하며 리엘화와 미국달러화의 2가지 통화로 발행된다. 만기전 은행간 양도가 가능하고 캄보디아중앙은행이 수용할 경우 만기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 또한 NCD는 2016년 6월부터 캄보디아중앙은행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동성담보대출의 유일한 담보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지만 발전 속도는 더 느다. 한국거래소와 캄보디아 정부가 2010년에 합작으로 설립한 캄보디아증권거래소에는 아직도 5개의 국영기업 주식만이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 금융, 건설, 통신 등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상장이 이어져야 하는데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이 대부

기고

캄보디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금융부문 협력방안

분 가족기업으로 지분매각에 소극적인데다 상장시 기업의 투명성이 공개되는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2018년 11월 Hattha Kaksekar Microfinance Institute가 국제금융공사(IFC)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년만기 금융채 3천만달러를 발행한 것이 효시일 정도로 출발이 높다.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자금과 저리 차관에 의존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이 아직도 B등급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제발행이 시기상조이고 주식시장의 장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채 중심의 채권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에는 아직 파생상품시장이 없으며, 외환시장 개선을 위해 최근에 중앙은행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의 직접 금융시장이 초기단계인 것과 달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시장 중심의 간접 금융시장은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는 상업은행 43개, 대출만 취급하는 특수은행 14개, 외은지점 6개 및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사(MFI: Micro Finance Institute) 80개가 은행영업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사에서 7곳은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73곳은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 및 마이크로파이낸스사는 외국 자본으로 비교적 높은 예대마진의 이점을 누리면서 캄보디아의 고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예금은행의 평균예금금리는 2018년 9월말 현재 1년 만기 기준 미국달러화 및 리엘화가 각각 4.44% 및 6.11%인 반면 대출금리는 미국달러화 및 리엘화 금리가 각각 11.08% 및 11.44%이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사의 대출금리는 단기대출로서 15.3~25.0% 범위이다. 그리고 2018년 9월말 현재 캄보디아 금융회사의 대출 및 예금 잔액은 각각 250억달러 및 210억달러 정도에 달한다. 이 밖에 간접 금융시장인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은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초기단계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투자신탁도 도입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금융인프라

캄보디아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고유 업무 외에 은행감독, 지급결제, 조폐, 금융정보분석 및 예금보험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은행감독기능을 제외하면 캄보디아의 금융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캄보디아의 화폐인 리엘화도 국내에서 제조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화폐제조를 의뢰하고 있으며, 상업은행 및 마이크로파이낸스사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장치

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의 증추라고 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자동현금지급기나 신용카드가 금융공동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9년 5월 가동 예정으로 한국의 금융결제원에서 개발 중인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금융회사간 실시간 자금이체, CD기 및 신용카드의 공동망 연결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지급결제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다.

201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을 한국에서 개발해줄기로 MOU가 체결된 이후 한국 정부는 무상 원조자금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예산책정 후 본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원조 프로젝트를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기하려는 무책임한 캄보디아의 업무처리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필자는 한국은행 파견 자문관으로서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를 파기할 수 없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없이 협력하는 중앙은행 사회의 프로토콜을 내세워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가카스로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본 궤도에 올려놓은 경향이 있다.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국제관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약속을 쉽게 뒤집는 태도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캄보디아측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MOU라는 족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후 수차례의 고비를 넘긴 끝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주한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한국의 금융결제원에서 수주하여 2017년 10월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시작한 후 2019년 5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개발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시스템과 함께 한국에서 캄보디아의 주요 금융인프라 전산시스템을 유지·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3) 감독정책

캄보디아의 은행감독 부문에서 최근에 일어난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감독당국인 캄보디아중앙은행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은행으로 인해 부실은행이 늘어나면 캄보디아 금융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신규면허 대신 부실은행 및 소형은행의 퇴출과 M&A를 유도하고 있다. 2016년 3월 22일자 조치를 통해 2018년 3월까지 상업은행은 종전의 37.5백만달러에서 75백만달러로, 외국계 현지법인 및 지점은 12.5백만달러에서 75백만달러로, 특수은행은 7.5백만달러에서 15백만달러로 그리고 MFI는 62,500달러에서 1.5백만달러로 자본금을 확충토록 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13일에는 농민 및 영세기업인에게 저금리 신용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MFI의 대출금리 상한을 18%로 전격 설정하여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크게 이익을 올리던 마이크로파이낸스사의 영업기반을 약화시켰다. 한편, 캄보디아중앙은행은 리엘화 사용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2019년말까지 모든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총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리엘화로 대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공표하였다.

4. 금융부문 협력방향

캄보디아 경제는 7%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절대적으로 외국의 직접투자자와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변변한 기간산업이 없는데다 소비재마저도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하다.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디고 은행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가 예측불가능한 가운데 은행 등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경쟁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

한국계 금융회사는 일찍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현재 상업은행 5개, 특수은행 3개, 마이크로파이낸스사 6개 및 증권회사 1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가 추가로 진출할 전망이다. 한국계 은행이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캄보디아 영업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새롭고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캄보디아의 금융업에서 감독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한 바, 필자가 전해 들은 바로는 초기에 진출한 금융회사는 선물과 뇌물이 통하던 시절이어서 이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한다. 이제는 자선단체 기부나 장학사업과 같은 사회적인 공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상품이나 제도에 대한 아

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캄보디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둘째,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 감독당국의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캄보디아 인접 국가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목적을 감추고 무상으로 금융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는 금융협력 MOU 체결에 거부감이 없었으나 이제는 도움을 주겠다는 나라의 제안을 선별하여 MOU를 체결할 정도이다. 그야말로 지원을 하는 자가 아닌 지원을 받는 자가 bargaining power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와 공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먼저 신뢰를 구축한 후에 업무협조 MOU 체결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필자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 금융감독원장의 중앙은행 총재 면담요청 거절,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의 MOU 체결 실패 사례를 보면서 MOU 체결에 앞서 신뢰구축이 먼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아직 조직에서 권한위임이 거의 없어서 공·사 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의 장이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위해서는 조직의 실무책임자 보다는 가급적 최고 책임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의 모 금융회사에서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협의서한에서 캄보디아의 장관을 수신자로 지정하면서도 그 은행의 임원 명의로 서한을 발송하여 캄보디아측의 분노를 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캄보디아와의 금융협력은 이미 과잉경쟁인 데다 예측 불가능한 감독조치가 리스크 요인인 은행업보다는 증권이나 보험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아직 초기단계로 충분히 틈새가 있는 보험업이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육성에 따른 증권업에 잠재적인 기회가 많을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보다 유리하고 안전하게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의 증권회사는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인도네시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Indonesia

전체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8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5박 6일간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경험전수 및 양국의 금융제도·감독체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소속 공무원 11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해금협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손해보험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연수원,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는 2018년 9월14일(금)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연수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해금협 21개 회원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연수단이 관심 갖는 주제인 한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리스크중심 감독 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이 개회사를,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이 환영사를 맡았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연수단의 대표인 금융감독청 Imansyah 상임위원과 Henry Rialdi 과장,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 금융감독원 박정현 선임조사역의 발표가 진행됐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	내용
15:45~16:00	등록 및 티타임
16:00~16:05	개회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
16:05~16:10	환영사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
16:10~16:20	포토세션
16:20~17:0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Imansyah 상임위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Henri Rialdi 과장
17:00~17:10	휴 식
17:10~17:50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이동엽 과장
17:50~18:30	국내 보험회사 리스크중심 감독 체제 소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박정현 선임조사역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인도네시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Indonesia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한국금융연구원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7일(월) 오전 한국금융연구원을 방문하여 해금협과 인도네시아와의 금융협력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한국의 대기업 구조와 금융포용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사무소에서 경제 취약부문의 회생을 돕는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NPL 정리 경험 노하우를 청취했다.



KDB산업은행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KDB산업은행을 방문하여 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장과 면담하고 자금부 IR팀으로부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IBK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글로벌사업부 본부장과 면담하고 이어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경제 전망, 기업은행의 역할,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인도네시아

Knowledge Exchange Initiative with Indonesia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내방

손해보험협회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장을 접견하고 한국의 손해보험 산업, On-line 보험 슈퍼마켓, 보험사기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을 방문하여 해외사업부 본부장 접견후 예탁원의 주요 업무와 인프라에 대해 소개 받고 국내외 핀테크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금융연수원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금융연수원을 방문하여 연수원의 설립배경과 회원구성, 금융부문 연수 및 강의 가능 분야,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현황 등에 대해 소개받았다.



예금보험공사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기관 부사장과 면담 후 금융안전망으로서 공사의 역할과 주요 기능, 경험과 노하우를 청취했다.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5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국제금융협력포럼(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해 왔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해금협 회원기관의 해외협력사업 파트너기관(금융당국 또는 공공·민간)의 책임자급 인사를 3박 4일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만찬 행사, 회원기관 방문,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추후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 하에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핀테크의 발전과 이와 연관된 금융의 포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4일(화)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Ha Huy Tuan 부위원장,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Vu Thi Chan Phuong 부위원장 등 해외 금융당국 고위인사 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국가주택공사, 네팔 신용정보원, 베트남 예금보험공사 등 15개국에서 총 39명의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고위관계자가 방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 21개 회원기관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5년간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IMF, WB, UN ESCAP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개막식

제5회를 맞이한 만큼 이번 포럼은 특별히 개막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영상 시연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구성, 발전과정과 주요사업 성과, 국제금융협력포럼의 의의와 역사,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해외협력사업 활동을 통해 구축한 전세계 800명이 넘는 금융 당국자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홍보하며, 앞으로도 금융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교류를 계속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5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개회사

손상호 | 의장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혁신은 핀테크 산업을 통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제 전체적으로는 금융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포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케냐의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인 M-Pesa를 예로들며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원조기구,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 등 연관된 모든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글로벌 협력의 일부분으로 글로벌 금융리더들이 금융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향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환영사

김용범 |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로 인해 금융부문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이미 핀테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G20 등에서도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요 과제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관계 강화가 중요하며, 핀테크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핀테크 산업에 적합한 규제와 틀 마련,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



축사

Ha Huy Tuan | 부위원장 |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Ha Huy Tuan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불균형한 국가 간 개발 수준 때문에 핀테크 전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역동적인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분야는 정부, 시민,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핀테크가 시사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에 성공한 지역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한 39명의 해외참석자들을 대신하여 주최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국제금융협력포럼과 같은 행사를 계속하여 글로벌 금융협력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기조연설: 핀테크와 포용적 금융에 대한 세가지 관점

성태윤 | 교수 | 연세대학교

기조연설을 맡은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핀테크와 포용적 금융에 대한 세가지 관점에 대해 발표했다. 첫번째 관점으로는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이 포용적 금융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신용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어떻게 하면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관점으로는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를 해체시켜 혁신기술 기반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경쟁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핀테크를 활용해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경쟁 친화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면서 포용적 금융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번째 관점으로는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가 금융과 관련된 지식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이해도를 개선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5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발표1: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핀테크 및 금융포용

Sameer Goyal | 프로그램 매니저 | 세계은행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핀테크 및 금융포용에 대해 발표한 세계은행의 Sameer Goyal 프로그램 매니저는 최근 세계은행이 핀테크 혁명과 금융포용을 진단 및 측정하기 위해 연구/발표한 “The Global Findex Database”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포용을 향상시킬 핀테크의 잠재력과 가능성, 세계은행이 2020년까지 이루고자하는 금융포용 관련 목표 및 주요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금융 계좌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전 세계 약 17억명 정도로 이들 중 11억명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거래 방식을 통해 여성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보다 포괄적인 금융포용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세계은행의 최근 프로젝트들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 리스크, 금융안정성 리스크,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등 핀테크가 초래할 여러가지 문제와 변화 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핀테크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2: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례

Inutu Lukonga | 선임경제학자 | 국제통화기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핀테크 활용을 통한 금융포용 증진에 대해 발표한 국제통화기금의 Inutu Lukonga 선임경제학자는 아직 국가간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핀테크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소개했다. 핀테크 활용에 있어서는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주변 국가들 역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의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제도 마련 및 민간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금융포용 증진이라는 핀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핀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필요하며, 이는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와 법과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 강화, 건전성 규제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규제 프레임워크, 인센티브 및 역량강화 제도를 통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3: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 사례

Alberto Isgut | 경제학자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의 핀테크와 금융포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Alberto Isgut 경제학자는 핀테크를 둘러싼 4개국의 규제 환경과 주목할만한 선진사례, 중소기업 금융확대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의 중요성,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진행중인 핀테크 및 금융포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4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 동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와 인구, 모바일 banking 부문의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ASEAN-5국가에 비해 약간 뒤쳐져 있지만 점차 체계화 되어가는 4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 및 규제 솔루션 개발 담당 조직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4개국이 지역협력을 통해 핀테크 부문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규제당국과 민간부문간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핀테크 솔루션 개발을 통한 여성기업인 금융지원확대 프로젝트와 금융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발표4: 인도 사례

Vivek Belgavi | 파트너 | PwC인도

인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포용과 핀테크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발표한 PwC인도의 Vivek Belgavi 파트너는 인도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인도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 몇몇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먼저, 인도가 지난 5~7년간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공적인 금융포용 확대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으로 혁신기업들이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유리한 규제환경과 NPCI와 같은 정부 주도의 핀테크 지원 플랫폼 기관, IndiaStack과 같은 통합정책 이니셔티브, 대규모의 인재 풀 등을 꼽았다. 나아가, 인도의 소액금융 전문회사인 Capital Float와 보험회사인 Acko가 전형적인 금융의 틀을 깨고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금융포용에 앞장선 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비전통적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핀테크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그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조해나가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얻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5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발표5: 한국 및 동북아시아 사례

김종훈 | 상무 | SC제일은행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4차산업혁명에 대해 발표한 SC제일은행의 김종훈 상무는 SC제일은행과 같은 전형적인 대형 금융기관들이 핀테크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변화하는 금융산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처음 핀테크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했다. SC제일은행은 디지털 혁신 전담 그룹을 설립하고 Ripple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기업과 Paxata라는 빅데이터 전문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키보드뱅킹과 같은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고객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한국의 송금전문 어플인 Toss와 중국의 WeChat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했다.



인터뷰

모로코 CCG Finance와의 인터뷰

Hicham Serghini | 기관장 | CCG Finance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5회 국제금융 협력포럼에 참가하시게 된 소감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행사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요?

A 이렇게 저희 기관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만, 유수의 기관 및 연사들과 함께 매우 관련성 있는 주제를 논하는 훌륭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모로코 내의 금융 접근성과 현지 금융 시스템에서 CCG Finance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정부와 은행업계의 노력으로 최근 모로코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펀딩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은행 여신, 대출, 자본시장 등), 아직까지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실정입니다(외부 자금조달원 중 67% 차지). CCG Finance는 중소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보증, 신용 및 사모투자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로코의 정책 및 규제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춰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요?

A 향후 바젤 III의 시행(현재 모로코는 바젤 II를 적용하고 있음), 소액창업대출 상한 상향 조정, 사모펀드 규제 효율화 등에 발맞추어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자본규제와 IFRS 9가 은행의 중소기업 위험평가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합법적인 소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신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Q CCG에게 있어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어떠한가요? 파트너십 관련 단기 및 장기 목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당사는 중소기업의 펀딩 관련 니즈를 충족할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파트너십을 통한 타 기관과의 경험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국가, EU 회원국 및 미국에 소재한 보증기관 및 국제개발기관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중소기업 금융포럼(SME Finance Forum) 참가기관이며 유럽보증기관연합(European Guarantee Association, AECM) 주최 행사 및 워크숍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은행 TF에도 참여했습니다. 동 전략 하에 당사가 모로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주력할 것이므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Q CCG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어떤 부문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리라 보십니까?

A 한국의 신용보증시스템은 아주 성공적이며 그 규모와 효율성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한국의 사례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증시스템 펀딩과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상품 관련 경험은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Q 기술보증기금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기술보증기금이 2018년 모로코에서 열린 제1회 혁신스타트업 포럼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비교적 최근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고, 기술보증기금의 검증된 전문성과 우수한 실적으로부터 더 많은 교훈을 얻고자 파트너십을 한층 발전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혁신스타트업 펀딩 관련 역량개발,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평가, 자금조달 솔루션 및 기술 평가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시안은 당사의 전략적 우선순위가기도 합니다.

기고

핀테크 활용을 통한 금융 포용성 증진 :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지역의 사례를 통해

핀테크가 금융 포용성 증진 및 한층 광범위한 목표인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핀테크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에 위한 펀딩방식의 다양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가능케 한다.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 포용적 성장 촉진이 전략적 우선순위다. 금융소외계층, 농촌 인구 및 신향민의 수가 상당하며 남녀의 극심한 금융접근성 차이, 높은 청년 실업률, 산업 단일화 및 심각한 소득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 악화가 최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의 상당수를 흡수했던 공공부문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석유 의존 경제의 성장 엔진인 재정정책은 유가의 하락 및 변동성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경제적, 사회적 및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경제구조 다양화, 민간부문 고용창출, 그리고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고용기회 창출수단으로서 중소기업에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며, 예금장려, 결제 안전성 제고 및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가계금융 포용성 증진이 추진되고 있다.

MENA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가계금융 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 낮은 금융 접근성이 중소기업 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손꼽히지만 관료주의적 절차와 규제 장벽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다. 낮은 금융 접근성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경영전문성, 금융 인프라의 부재(감사 및 회계 기준, 신용정보 기관, 담보 및 파산 제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 부족 등 다수의 내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높은 금융 수수료와 고객신원인증(KYC) 규제 관련 복잡한 서류 요건 역시 일반 시민들의 계좌 개설을 가로막고 있다.

신규 기술 및 혁신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해소 가능하다.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중소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여 글로벌 시장과 금융서비스³⁾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기술과 친숙한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기술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일조한다.

MENA 지역의 핀테크 도입은 그 속도가 더디고 국가간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점차 추진력이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 활용에 있어서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바레인, 이란 및 사우디 아라비아 역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모리타니, 모로코, 카타르, 소말리아)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MENA 지역의 핀테크 도입을 이끄는 요소들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분모도 있다. 핀테크를 가장 선진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마련, 규제 공백 개선,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설립 및 펀딩 프로그램 구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그리고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등을 이룩했다. 더하여 아랍에미리트가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에는 민간자본의 활용도가 한 몫을 했다. 비은행 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참여에 대한 법적 명료함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규제들은 특히 모바일 계좌와 지급결제 서비스의 증가를 촉진했다. 일부 국가들(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은행 인프라의 부족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폭넓은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MENA 지역의 핀테크 도입은 아직까지 그 성장 잠재력을 밑돌고 있으며 금융 포용성과 중소기업 펀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과도한 규제와 인재, 민간자본

Inutu Lukonga¹⁾ | 선임경제학자 | 국제통화기금



및 인프라의 부재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낮은 신뢰도, 보안 리스크 및 금융이해도와 관련한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상황을 악화시킨다. 은행의 디지털 기술 도입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 러닝도 매우 초기단계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중소기업 역시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핀테크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MENA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핀테크를 추진함과 동시에 리스크가 완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 은행 및 기업에 걸친 폭넓은 핀테크의 도입이 있어야만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핀테크 발전 속도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용적이고 비례적인 규제를 채택해야 공정한 경쟁환경이 갖추어지고 규제 범위 안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며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법과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 강화, 그리고 구조적 병목현상 완화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는 예방, 탐지, 정보 공유, 모니터링, 금융 및 기술 이해도, 그리고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여 규제 공백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해야 하며⁴⁾, 이에 파산, 전자화폐기관의 운영, 중개기관 네트워크의 유동성, 클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대출 플랫폼,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아웃소싱, 그리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포함된다.
- 감독 프레임워크 및 역량은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기술이 사기,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진흥과 리스크 관리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 구조적 제약 요인은 포괄적이며 올바르게 설계된 중기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인프라 강화(안정적 전력 공급, 지급결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지역분산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소외된 계층(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도입, 금융이해도 증진 프로그램 도입, 사모투자 및 벤처캐피탈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시행 등이 포함된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규제 프레임워크, 기관, 인센티브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 Inutu Lukonga는 IMF 중앙아시아국의 선임경제학자이자 금융전문가이다. 동 기고문은 “핀테크,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이버 위험: 중동·북아프리카·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MENAP) 및 코카서스·중앙아시아(CCA) 지역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IMF 연구 보고서 WP/18/201를 기초로 하고 있다. IMF의 연구보고서에 담긴 의견은 오롯이 작성자의 것이며 IMF나 그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2) 예로 2017년 발간된 세계은행의 연구 “MENA 국가에서의 중소기업 발전 장애물 해소 및 금융 접근성 개선” 과 “MENA 지역 중소기업 대상 이슬람 금융 기회”를 참고할 것.

3)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을 이용해 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자금세탁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선진적인 담보 등기관리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동산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펀딩 및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도 대안적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4) 법 및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체계가 대륙법(civil law)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MENA 지역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대륙법 상에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지되므로 대륙법 기반 국가에서 핀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료함과 확실성이 필수적이다. 반면 영미법(common law)에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허용되는데, 따라서 혁신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IBK기업은행 · 은행연합회 미얀마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IBK기업은행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8월 27일(월)부터 8월 31(금)까지 4박 5일간 '미얀마 고위공무원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동 행사는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부 서기관, 산업부 국장 등 고위공무원 9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얀마 금융 교류 · 협력 강화 및 국내은행의 미얀마 시장진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나아가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미얀마 중소기업 금융부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결제원 · NICE평가정보 라오스 재무부 및 투자계획부 초청 공동세미나

금융결제원과 NICE평가정보는 2018년 10월 20일(토)부터 10월 24일(수)까지 4박 5일간 '라오스 재무부 및 투자계획부 초청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라오스 재무부 및 투자계획부 4명을 초청해 라오스 내 공과금, 전기요금 등 다양한 요금의 효율적인 수납을 위한 통합수납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나아가, 한국의 신용정보 인프라 현황과 NICE 그룹에 대해 소개했다.



신용정보원 · KCB

인니 금융감독청 초청 공동연수

신용정보원과 KCB는 2018년 11월 5일(월)부터 11월 10일(토)까지 5박 6일간 한국형 신용정보 시스템의 인도네시아 안착 지원을 위해 '인니 금융감독청 초청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세미나, 기관방문, 현장 학습 등으로 구성된 동 행사에서 한국의 신용정보 제도 및 기술 관련 최신 지식 전수가 이루어졌으며 인니 금융감독청 공무원 및 관련자 6명이 참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니 KSEI 대상 공동 초청연수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2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3박 4일간 '인도네시아 중앙예탁기관(KSEI) 공동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동 행사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펀드넷 등을 소개하고 S-INVEST 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과 인도네시아의 SLB 시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상호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정례회의

08

8월 정례회의

- 일 시** 2018년 8월 31일(금) 17:00~18:00
- 장 소** 포시즌스호텔 6층 아라룸
- 참여기관/인원** 20기관 / 29명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및 한-인니 금융협력세미나,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한-CLMV 금융협력포럼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8월 정례회의를 개최

10

10월 정례회의

-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16:00~17:00
-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인원** 18기관 / 21명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한-CLMV 금융협력포럼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금융결제원 · NICE 평가정보, 신용정보원 · KCB,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건의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지원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10월 정례회의 개최

11

11월 정례회의

- 일 시** 2018년 11월 23일(금) 16:00~17:00
-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인원** 19기관 / 24명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한-CLMV 금융협력포럼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1월 정례회의 개최



12

12월 정례회의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7:00~19:00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9기관 / 26명

2018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12월 정례회의를 개최

기타활동

08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일 시	2018년 8월 23일(목) 11:30~13:00
장 소	금융위원회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수원, 서울시 등

금융분야 대외협력 업무 캘린더 업데이트 상황 공유 및 해외 IR 성과 보고와 금융분야 新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금융분야 대외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

12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12:00~13:30
장 소	금융위원회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수원, 서울시, 부산시 등

금융분야 대외협력 업무 캘린더 업데이트 상황 공유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금융분야 대외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



발 행 일 | 2019년 2월 28일

발 행 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관 6층

전 화 | 02-3705-6353

팩 스 | 02-3705-6285

홈페이지 | 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